

전북 사회적경제 지원 방향 한눈에

전북자치도·도 경제통상진흥원, 22일 통합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시·군별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통합설명회를 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북사회적경제

센터에서 '전북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비롯해 도와 14개 시·군의 주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사업 참여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또

한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통합설명회는 전북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흩어져 있던 도·시·군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정책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

창업자, 중간지원조직, 관계기관 담당자 등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전북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략기술·딥테크 기업 집중 육성 본격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10주년 맞아 22일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 1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나선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김진우)는 22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전북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략기술 분야와 딥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비롯해 AI 글로벌 빅데

크 육성, 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글로벌 실증(POC) 사업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공통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올해 총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구 내 기업과 유관기관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58억 원은 전략기술 및 딥테크 기업의 집중 육성, 딥테크 창업 활성화, 특구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에 사용된다. 또

한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88억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딥테크 사업화를 위해 기업당 2년간 최대 5억2500만 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R&BD) 자금이 지원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특화기업을 대상으로 한 R&BD 지원도 동일한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1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의 후속 조치로, 특화 분야별 딥테크 기술 고도화, 연구소기

업 중심의 유니콘 기업 육성,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략기술 발굴, 해외 엑셀러레이팅, 실증 프로젝트 지원 등이 집중 추진될 계획이다.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전략기술과 딥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해 전북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연구개발특구는 특구가 익산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오는 1월 27일 오전 10시, 일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5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종합식품기업 ㈜하림을 방문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경영을 실시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하림 방문해 현장 경영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대표 기업을 찾아 현장 경영에 나섰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5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종합식품기업 ㈜하림을 방문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경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길환 본부장은 정호석 하림 대표 이사와 만나 2026년도 경영계획과 최근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속되는 고환을 기초 속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환리스크 헷지(Hedge) 등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하림의 생산 공정을 직접 견학하며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과 품질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 수요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15일 전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간담회 가져

전주상공회의소가 청년 일경험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기업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15일 전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2025년도 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 공유,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사업 개선 의견 수렴, 2026년도 사업 운영 계획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

을 뒀다. 특히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일경험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현업을 수행하며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이나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산업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작물 형질조사 시간 대폭 단축

농촌진흥청, '표현체 기술·AI 결합' 자동화 기술 개발

작물 신종 품종 개발에 필수적인 형질조사 시간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표현체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던 형질조사 작업을 평균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장려상 수상 모습.

형질조사는 우수 품종 개발을 위해 작물의 크기와 모양, 색, 수량, 생육 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신종 품종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지금까지는 연구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측정하는 방식에 의존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3년간 표현체 기술과 AI 학습 기술을 접목해 340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총 6개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을 완성했다. 해당 기술의 분석 정확도는 90% 이상이다.

개발된 기술은 일반 카메라(RGB 영상)와 초분광 카메라로 촬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의 크기와 형태, 병 발생 여부, 생육 상태 등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수작업이 줄어 인력 부담이 감소하고,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배제돼 결과의 객관성과 재현성도 크게 향상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특허 4건을 출원하고, 국제 학술지 논문 1편을 발표했다. 저작권 1건도 등록했다. 앞으로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 전수회를 열고,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현장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술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에서 기술성과 공공 분야 파급 효과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순진 농촌진흥청 디지털육종지원과장은 "표현체와 인공지능 결합 기술은 데이터 기반 농업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육종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

청년 인재를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가 열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가 16일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벤처투자 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관하고, KAIST 기업가정신연구소가 주관한다.

경진대회에는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숭실대, KAIST, 포항공과대 등 국내 6개 대학 대학원생들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실제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역할을 맡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발표 등 벤처투자

절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특히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과 달리, 현지 벤처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과 평가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오는 4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VCIC)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회사 인턴십과 채용 연계 등 실질적인 진출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벤처투자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투자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